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7. 3.(금)	사진·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7월 3일(금)부터		
담당부서	의정담당관 의정팀	담당자	박경용 사무관(044-300-7211)
			김용모 주무관(044-300-7212)

제5대 세종시의회 개원식 개최... 39만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여정 출발

-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새 슬로건 발표
- 총령탑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시작... 21명 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 의회' 다짐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3일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새 슬로건 아래 개원식을 열고 39만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여정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원식은 제5대 의회의 힘찬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의 뜻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안신일 의장을 비롯한 21명(지역구 18, 비례대표 3)의 제5대 시의원들은 앞으로 시민의 삶과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세종시 발전에 기여하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안신일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2030년 세종 완성의 해를 앞두고 제5대 의회가 그 여정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를 찍고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협력과 균형 발전 그리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조치원읍 충령탑 참배를 통한 순국선열 추모를 시작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 및 윤리강령 낭독, 기념식수, 개원 축하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조상호 세종시장, 강미애 교육감, 김종민 국회의원 등 내외 귀빈 100여 명이 참석해 의회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개원식 직후 의회 정문 앞에서는 지역구 시의원 18명이 각 읍면동에서 직접 가져온 흙을 모으는 '합토(合土)' 의식과 비례대표 의원 3명이 금남면 초정약수, 한솔동 참샘약수, 전의면 전의초수 등 3개 약수로 물을 주는 '합수(合水)' 의식이 이어졌다. 동참한 참석자들은 세종시 전체의 화합과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아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의식에 참여했다.

제5대 세종시의회는 이번 개원식을 기점으로 상임위원회 등 전반기원 구성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의정 활동에 매진할 예정이다.